

“역사의 첫 장, 호남 구석기 안다는 건 중요”

이기길 조선태 교수 ‘호남 구석기 문화의 탐구’ 펴내...30년 연구 성과 집대성



“구석기 시대는 우리들의 시작을 다룬다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2018년 오늘이라는 점과 구석기 시대라는 점이 짝하면 미래 또한 쉽게 잡힐 수 있



타고 아주 오래된 과거로 떠나는 여행처럼 다가왔다. 서울에서나고 자란 이 교수가 광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1991년 조선대 교수로 부

는 것과 연계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주가 예술의 고장, 민주화의 성지라는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첫장’부터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호남의 구석기 문화가 당대 중국, 유럽의 구석기 문화와 무엇이 같고 다른 지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가는 물음에 그는 “순천 죽내리, 화순 도산리 지층퇴적 증거 등 유물을 근거로 추정하건대 7~8만년 내지 10만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석기시대 전기, 중기, 후기 구간별로 유물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 죽내리 유적은 중기-후기 구석기인들의 삶을 자세히 밝힐 수 있는 보고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두 4개층으로 이루어진 유물이 출토되었죠. 퇴적이 쌓이는 시기에 따라 각기 유물이 다르게 분포돼 있다”고 말했다. 호남의 구석기 문화에 대한 애정의 단면으로 읽혔다.

이 교수는 “세계 학계의 흐름뿐 아니라 일본만 하더라도 구석기 시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에 구석기 관련 문화와 유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호남의 구석기 문화를 안다는 것은 오래 전 이 땅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아

물론 전통의 도구도 이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문화 역사의 발전은 혁명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하면 생존을 위해 바뀐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또한 장흥 신복 유적을 근거로 왕인박사 이전에 이미 일본과 교류가 이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신복 유적에서 출토된 흑요석기가 자연과학분석 결과 백두산과 일본 큐슈산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왕인박사 이전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보성강 유역에서도 유사한 유물이 발굴됐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가 구석기문화, 그것도 호남의 구석기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은사 이면서 한국 구석기를 개척한 손보기 교수 영향이 컸다. 조대 교수로 부임할 때 은사는 “호남지역 구석기 소대장이 되라”는 임무를 줬다고 한다.

“경기도와 충청도는 각각 전곡리 유적과 석장리 유적을 바탕으로 박물관을 만들고 세계 구석기축제를 하거든요. 우리 지역 순천 월평리 유적은 여러 층에서 유물이 발굴된 곳으로 후기구석기 유적으로 중요한 곳이지요. 그런데 지자체나 일반인들 관심이 거의 없어요. 호남의 구석기 유적은 유네스코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인류문화유산인데 하루빨리 문화관광자원화 하면 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색깔의 ‘빛’이 시선을 압도했다. 마치 된가에 흩날린 빛을 따라가다 보니 각각의 색깔을 입힌 종이테이프를 반복해 붙인 캔버스에 나타났었다. 남북한의 화해무드에 영감을 받아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색과 빛으로 형상화한 우제길 화백의 작품이다. 그리고 보니 전시장 곳곳에는 목직인 사회적 화두를 특유의 강렬한 빛으로 구현한 작품들이 가득했다. 강추위가 이어진 바깥 세상과 달리 변화무쌍한 컬러들이 빛어낸 화면은 어둠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뜨거운 생명력을 보여줬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개막된 2018 지역작가

에 큰 보탬이 될 정도로 대중화됐다. 무엇보다 매년 12월이 되면 미국 미술관들은 밀려드는 ‘단체순남’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미술관에서 그림도 보고 식사도 하며 한해를 갈무리하는 송년모임이 쇄도하기 때문이다. 아예 일부 미술관은 ‘컨디션 마케팅’으로 짝퉁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중에서도 미국 메릴랜드주 중심부에 위치한 볼티모어 미술관은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송년회 장소다. 미술관은 10인 이상 단체모임에 한해서는 큐레이터가 가이드를 맡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최고급 수준을 자랑하는 미술관의 레스토랑은 1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워싱턴 D.C의 미식이

어쩌다 ‘미술관 송년회’

초청 ‘우제길의 빛’전에 다녀왔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기획된 초대전의 위상을 말해주듯 전시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아니 다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시회를 찾은 ‘순남’들은 서로 오랜만의 재회에 반가움을 나누느라 바빴다.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어쩌다 송년모임’에 모두가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광주는 문화수도를 지향하지만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송년모임을 갖는 문화애호가들이 많지 않다. 물론 근래 좋은 전시나 콘서트를 단체 관람하는 것으로 송년회를 대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예 갤러리나 미술관을 빌려 한해를 되돌아 보고 친목을 다지는 예는 드물다.

하지만 문화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이나 유럽은 미술관 모임이 일상의 한 부분이다. 연중 관람객들로 붐비는 미국 미술관의 경우 단체모임이 미술관 재정

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다. 그렇다고 연말에만 반쪽 특수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평상시에도 미술관은 가족들의 외식 나들이에서부터 비즈니스맨들의 사교모임에 이르기까지 인기가 높다. 이렇다 보니 송년모임이 많은 12월에는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미술관 송년회가 인기를 끄는 건 미술품을 보면서 지인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색다른 체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도 임이나 송년회 하면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둘러앉아 술과 음식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나라 송년회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한해의 끄트머리인 12월, 미술관이 나 공연장에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보자. 분명 예술적 감동 못지 않은, 잊고 싶었던 일상의 여유를 되찾게 될 것이기에.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서 사랑한 여인

정찬주 ‘소설 정약용’ 펴내...업적 대신 눈물 등 내면 담아



올해 다산해배(解配) 200주년을 맞아 재조명이 활발한 가운데, 정약용을 다룬 소설이 출간돼 화제다.

이야기한다. 소설 중간 중간 정약용의 깊은 내상(內傷) 또한 아프게 다가온다. 작가가 정약용의 슬픈 노래, 즉 비가(悲歌)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으로 유배 온 다산은 동문 밖 밭집 노파를 통해 지난날을 돌아본다. 초당으로 가서는 본연의 선비로 돌아와 강학을 열고 발매기를 일구고 농부의 수고를 경험한다. 그러는 중에 다산은 남당포 여인을 동안에 들었고 흥임이라는 딸을 얻는다.

초로의 나이에 늦둥이를 보았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훗날 흥임에게 주려고 꽃핀 고매(古梅)에 새 한 마리가 나는 그림을 그려준다. 한때 다산은 유배생활의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와 절망한다. 그러나 흥임 모가 날마다 차(茶)로 병수발을 해 다산이 다시 집필할 수 있게 해준다.

마침내 다산은 해배가 돼 고향 마재로 간다. 뒤에 흥임 모와 흥임이도 마재로 갔지만 곧 초당으로 돌아오고 만다. 초당과 마재의 공기는 견디지 못할 만큼 달랐다. 그래도 다산은 생이별을 감내할 뿐이다. 소설에는 전라도와 강진의 향토언어가 맛깔나게 형상화돼 있다. 작가는 김영랑의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향토언어가 다소 생경할 수도 있지만 읽다보면 아름다운 정감을 느낄 수 있다.

정 작가는 후기에서 “우리가 다산을 기리는 이유는 다산이야말로 한국인이자면 결코 잊어서는 안될 정체성을 한껏 발휘하고 살았던 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 출신 정 작가는 장편 ‘소설 무소유’, ‘이순신의 7년’, ‘천강에 비친 달’ 등과 답사기 ‘암자로 가는 길’ 등을 펴냈으며 광주일보에 ‘정찬주의 유럽 예술기행’, ‘그리스인 조로바를 찾아서’를 연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도시 광주 나갈 방향은

광주시·시민단체 내일 포럼

민선 7기 문화도시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광주시와 시민문화예술단체 간 대화를 나누는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는 오는 20일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여섯 번째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제안한 10대 문화정책의 민선 7기 문화정책 사업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광주시 문화행정 혁신’, ‘기초예술이 근간이 되는 문화예술활동’, ‘시민문화권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포럼의 사회는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이 맡으며 정두용 광주문화정책연대 공동간사 대표가 ‘광주문화정책연대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문화정책 공개제언’을, 박항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이 ‘민선 7기 문화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유시민 ‘역사의 역사’ 올해 최고의 책 선정

인터파크 독자 투표

인터파크 독자가 뽑은 올해 최고의 책에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가 선정됐다. 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독자들이 선정하는 ‘2018 최고의 책·음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총 32만1564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가 15.1%의 지지를 얻은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가 1위를 차지했다. ‘역사의 역사’는 고대부터 최근까지 역사서와 역사학자들이 서술한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2위는 ‘꿈들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가 올랐다. 뒤이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등이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커피를 마시면
사랑이 시작된다!

채널A 주말특별기획
커피야, 부탁해

용준형 김민영 채서진 이태리 길은혜 김남매 류해린 맹세창 한재우 이태은 이갑선 장석주 김동준 우정환 윤소이 김경 | 극본 서보라 이아연 연출 박수철

CHANEL | BNCULTURES | contents | 흥정북도 | FCM | 카페티아도 | COSTIX | WESTWOOD | Wacom | E2 | Rakuten Viki

매주 토·일 저녁 7시 40분